

편의점 10곳 중 4곳 최저임금 못받아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광주지역 영세사업장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 감소를 메우기 위해 감원과 시간 단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편의점·식음료업·각종마트·판매업·건설경기 및 청소·아파트 경비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분야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 등 601명을 대상으로 '2021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16%가 '감원이 있었다'고 답했다.

감원의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가 56.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26.2%가 '근무시간 단축 경험(시행)'을 했다고 답변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운영에 가장 부담되는 사항 1순위'로는 47.5%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선택했다. 작년까지 '임대료'가 부담사항 1순위였지만, 코로나19가 2년째에 접어들면서 수입 감

영세사업주 준수율 86.7%... 운영 애로 1순위 '수입 감소' 노동자 10명 중 3명 "내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돼야"

소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2022년) 희망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에 전체 노동자 중 33.9%가 '1만원'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고용불안으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우선시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인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2021년 최저임금(8720원) 준수율은 86.7%로 지난해 81.8%에 비해 약 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86.8%인 반면 제조업 분야는 86.1%로 비교적 낮은 가운데 편의점만은 60.1%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매년 최저임금 준수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등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총 가계소득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자의 약 45%가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근무시간 단축, 감원, 폐업, 휴직 등이 가계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찬호 센터장은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 안타깝다"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이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임대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6월 모의평가, 지난 수능 대비 어려웠다" 전남대 의예과 280점·조선대 277점 안팎

광주교육청, 11일 설명회

지난 3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전체적인 출제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변화된 수능 시험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고,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됐다. 광주 지역 전체 응시자는 1만1295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국어는 지난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인 독서에서 수험생들의 제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됐다.

수학은 지난 수능과 유사하지만 수험생에게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신유형이나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지만 문제풀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어는 올해부터 EBS교재 연계율이 50% 간접연계로 전환된 영향을 많이 받아 지난 수능에 비해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 수험생들이 느끼는 제감 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봤다.

사회탐구는 과목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과학탐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보다는 기존의 출제 경향을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 지원 가능 점수도 분석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272점 내외, 자연 계열 26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263점 내외, 자연 계열 26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경우 261점 내외, 광주교육대는 231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28점, 국어교육과 225점, 행정학과 222점, 경영학부 217점, 정치외교학과 205점, 국어국문학과 201점, 기타 인문계열 190점 내외로 예측했다.

자연 계열은 의예과 280점, 치의학과 277점, 약학부 271점, 수의예과 264점, 전기공학과 251점, 간호학과 224점, 수학과 223점, 기타 수학 미지정 학과(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모두 지원 가능) 201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선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02점, 국어교육과 196점, 기타 인문계열 134점 내외로 예측했다. 자연 계열은 의예과 277점, 치의예과 271점, 약학과 268점, 간호학과 211점, 수학교육과 197점, 기타 학과 135점 내외로 예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떡 나눔 행사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동림동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한국농아인 한마음협회(회장 김정식) 회원들이 시설 이용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호떡을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수강생 작품전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도

광주시 북구는 올해 상반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음식강좌 수강생 작품전시회와 '퇴직자와 함께하는 여름철 입맛 돋우는 별미 여행' 특별강좌를 운영한다.

음식강좌 수강생 작품전시회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남도향토 음식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작품 전시회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이수자, 민경숙 선생과 발효 음식명인 김봉화 강사, 호원대 김나형 교수 등이

참여해 남도향토음식과 광주 대표음식의 멋스러움을 연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으로는 죽순장아찌, 도라지 김치, 미나리 들깨김, 꽃매자과, 삼치탕수 등 남도향토음식과 광주한정식, 무등산보리밥, 광주오리탕, 송정향토떡갈비, 광주주먹밥, 광주상추튀김, 광주육전 등 광주 대표음식이 전시된다.

한편 북구는 '퇴직자와 함께하는 여름철 입맛 돋우는 별미여행'을 주제로 특별 음식강좌를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한옥설계 전문인력 무료 양성

전남대학교가 한옥 전문인력을 무료로 양성한다.

전남대 광주·전남 한옥설계교육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한옥설계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건축사 및 예비건축사, 건축 및 문화재 관련 전공자 가운데 교육생을 선발한다.

오는 15일까지 기초반을 모집해 6월 말부터 약 5

개월간 교육이 진행되는데, 특히 올해는 기존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반(12명)도 개설된다.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등 실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은 한옥 전문 교수진의 이론수업과 문화재실측설계 전문가 및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의 한옥실습, 현장답사 등으로 구성된다. 수료생은 전남 한옥마을의 한옥설계 건축사로 활동 가능한 DB로

관리되고, 지방 자치단체 한옥위원회에 한옥설계 전문인력으로 추천되거나 청소년 대상 한옥 설계캠프, 꿈다락 건축학교 등에 강사로 참여해 한옥 문화를 전파하게 된다.

전남대 광주·전남 한옥설계교육원은 지난 2018년 전남도·전남건축사회와 협약을 맺어 교육을 진행해왔는데, 전남지역은 물론 전북, 충청, 경남에 서까지 교육생이 찾아올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국토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일자리센터 '글로벌기업 탐방' 진행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오는 21일부터 7월30일까지 글로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기업 탐방'을 개최한다.

조선대 재학생이 참여 가능한 '글로벌기업 탐방'은 입사 목표 글로벌기업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글로벌기업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목표 글로벌기업

에 직접 방문, 글로벌기업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6월 21일~7월 30일 기간 내에 글로벌기업 탐방,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학생통합지원시스템(CU+)비교과과정프로그램 신청해야 하고, 글로벌기업 탐방 보고서는 대학일자리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채희종 기자 chae@





우리동네
sMile aGain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혜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접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내용 MG체크카드 이용자

신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